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2, Vol. 11, 63-86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

김 경 신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요약) 본 연구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년기가 길고 최근 들어 다양한 측면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그 차이를 파악해보고 또 가치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관련된 요인을 검토하여 가족가치관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231명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을 영역별로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아직 전통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지만, 성 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근대화 경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노인부양의 가치관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났는데, 이는 가족가치관 중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가장 다양하게 논의거리가 됨을 의미한다. 한편 가족주의 가치관의 경우 어느 집단이나 공통적으로 굳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건강한 집단에서 가장 근대적인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보다 더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김경신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이메일 주소는 kks@chonnam.ac.kr입니다.

김 경 신

근대적이어서 아들이나 장남에 대한 부양기대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 또는 가족지지가 높은 집단의 가치관이 보다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가족가치관, 결혼관, 노인부양, 생활만족, 성 역할, 여성노인, 자아존중감]

현대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족 및 개인의 변화를 초래했는데, 특히 가치관과 같은 정신적 측면의 변화는 사회 변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또는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거나 평가하는 표준이나 이념, 신념으로서 가치관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태길, 1969; 정원식, 1969).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관은 사회의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또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가족이라고 할 때, 가족에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그 형태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의 면에서도 신구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가치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 사회나 개인의 욕구 또는 관심이 변하면 그 사회나 개인이 인정하는 가치에도 변화가 생기므로 (김태길, 1996),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가치의 변화를 동반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세대나 연령집단간의 가치 차이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가치 차이가 심화될 때 여러 가지 가족갈등이나 사회문제가 파생되게 된다.

이와 같은 가치변화가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하여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부양문제의 경우 가족주의가치관이나 효도개념의 변화와 연관시킨 연구들을 통하여 그 경향을 알 수 있으며 (김송애,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1991; 임지희, 1989; 한은주·김태현, 1994), 결혼이나 성 역할, 가족주의에 관한 가치관 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통하여 증가하는 부부갈등이나 이혼문제에 관련된 가치관의 탐색이 가능하다 (김명자, 1990; 박태운, 1983; 이미숙, 1997; 이정연, 1982). 따라서 가치변화의 흐름을 탐색하는 일은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가치교육 속에서 살아왔던 현재의 노년 세대는 가치관이 다른 신세대의 도전을 받으면서 갈등을 겪어온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가치갈등은 스스로에게는 정신적 적응의 문제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노인문제나 세대갈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곧 올바른 가치관정립이 노인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가치관의 여러 영역을 대상으로 노인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가족가치관 형성과 노인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 노년기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최근 들어 다양한 측면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과 그 차이를 파악해보고자 하며, 가치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관련 요인을 검토하여 가족가치관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곧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는 것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개인 및 가족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선 행 연 구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관한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 및 조직화된 관념체계인데, 이는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몇 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박혜인, 1990). 예를 들면, 홍승직(1971)은 한국인의 가치관을 가족, 경제, 정치, 사회, 및 종교에 관한 가치관 등으로 분류했으며, 김인자·황응연(1974)은 그 분류에 도덕·윤리 가치관을 추가하였다. 옥선화(1984)는 결혼 전 배우자선택이나 결혼에 관한 가치관, 및 결혼 후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나누어 연구했던 반면, 박혜인(1990)은 자녀나 노후, 여성, 및 전통의례에 관한 내용으로 가족가치관을 분류하였다. 그밖에도 김순옥·류점숙(1984)은 결혼, 역할, 부모부양, 및 가족중요도에 관한 가치관, 김일명(1988)은 효도, 조상숭배의식, 성 역할, 가부장권이나 친족의식 등의 가치관, 그리고 박진숙(1984)은 가족의식, 혼인의식, 부모부양의식 등의 가족가치관으로 분류했다. 곧 가족가치관의 하위개념들은 결혼, 성 역할, 자녀, 부양 및 효도, 가족주의 가치관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영역 구분을 통하여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각 영역별로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 먼저 순결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미혼일 때나 기혼자일 때 남녀의 순결을 모두 강조했는데, 특히 결혼 전보다 결혼 후의 순결을 강조하였다 (박인덕, 1973). 한편 결혼 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남성일 경우 어느 정도 허용되나 여성일 경우에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영주, 1976). 또 1980년대의 반응도 이와 유사했는데, 고정자(1983)는 미혼남성의 과반수 이상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박진숙(1984)은 남녀 모두 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도 변하여 혼전의 성관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김혜선·김영희, 1983; 양명숙, 1996; 이정우·오연옥, 1995), 이는 남녀에 따라 이중기준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미혜, 1993; 박순희·함귀옥, 1986; 이정숙, 1985). 역시 결혼관에서도 변화를 보였는데, 여대생의 결혼의 필요성의식이 감소되거나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전미향, 1988; 조영숙, 1980).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성 역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증가는 전통적인 성 역할 개념에 근거한 가족윤리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서 김정옥(1980)은 도시화 및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가족 내 부부의 역할분화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보았지만, 옥선화(1980)는 역할분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역할구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서병숙·김윤(1983)도 대도시 거주자들의 경우 근대적 역할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은 완전한 평등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초반에도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김명자, 1990), 1990년대 중반에는 여성의 직업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한 조사의 예를 들면, ‘여성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에 6.6%가 그리고 ‘결혼·육아에 상관없이 원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에 40.9%가 그렇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공보처, 1996). 또 가정 내 의사결정권도 항목에 따라 비교적 아내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규정짓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개념에 집착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양명숙, 1996).

자녀.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아들, 특히 장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1980년대의 대도시 거주자들의 경우 근대적 의식을 보이기도 하지만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여아보다도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큰 편이었다 (서병숙·김윤, 1983; 정영숙·이선자, 1980). 물론 1980년대 초반의 조사에서 미혼남성들이 ‘두 자녀가 모두 딸이더라도 경우 더 이상 낳지 않겠는가?’의 질문에 59.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고정자, 1983), 그 후 1990년대까지의 조사에서 남성들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적지 않았다 (공보처, 1996; 김명자, 1985; 양명숙, 1996).

효 및 부양의식.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노부모의 부양을 절대적으로 자녀의 의무로 여겼지만 (이천세, 1973), 곧바로 부모부양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책임도 부분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했다 (이영하, 1975).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후문제를 노인 스스로가 해결해

야 한다는 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는데 (서병숙·김윤, 1983), 한국인 구보건원(1985)의 노인의 주거형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장남부부와 동거가 38.4%, 장남이외 아들과의 동거가 12.4%, 딸 부부와의 동거가 2.4%로 나타나 점차 장남과의 동거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또 서병숙(1988)은 딸 부부와의 동거비율이 11.6%라고 보고했다.

한편 자녀세대들의 부양의식 연구에 의하면, 장남은 노부모와의 동거보조형을 선호하나 막매느리는 별거보조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춘희, 1987). 근래에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부양이나 효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즉 장남 이외 차남이나 딸과의 동거비율이 늘어남과 동시에 장남이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보처(1996)의 조사에서는 부양자로 아들 딸 관계없이 자식이 모시면 된다는 응답에 62.4%가 찬성하고 있어 장남이 모셔야 된다는 비율(14.8%)을 크게 앞지르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부모부양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부양자에 대한 의식은 크게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주의. 우리 문화권에서 보인 1970년대의 핵가족 현상은 서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핵가족은 증가하나 가족주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았다 (정현희, 1978). 1980년대 들어와서는 주부들의 가치의식이 근대적 개념으로 상당히 변했으나 (김명자, 1980; 이연주, 1984), 이는 개인이나 가족관심을 우선시하는 과도기 상태의 특성이라고 했다 (박혜인, 1988). 청소년들도 가족의 유대의식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으며 (김순옥·류점숙, 1984), 농촌거주자들도 역시 가족주의가 전반적으로 지지되고 있었다 (옥선화, 1989).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가족중심주의 가치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규원, 1995; 김경신, 1998), 부부를 이해하는 모습도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탈피하고 있었다 (이미숙, 1997).

노인의 가족가치관에 관련된 변인

노인의 가족가치관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변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인은 성별이다 (이동수, 1987; 한은주·김태현, 1994). 특히 단독가구의 여성노인들은 자녀와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가끔 만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세대간의 유대관계에서 접촉빈도보다는 접촉의 성격이나 내용을 더욱 중요시함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박정란·임춘희, 1989).

또 연령이나 결혼상태 등의 다른 변인들도 노인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효행에 관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연주, 1984),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부양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주·김태현, 1994). 또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도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박재간·임춘식, 1983),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치관이 가장 독립적이고, 하류층의 노인들이 가장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손정구, 1998).

한편 노인의 가족가치관은 노인의 동거형태와도 관련이 있는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동거부양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조, 1996). 또 자녀가족과 동거하는 노인들이 별거하는 노인들보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손정구, 1998), 역시 독립적인 노인일수록 자녀와 별거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정·최혜경, 2001).

이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외에도 가족들간의 상호작용변인도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oleman과 Ganong(1984)은 가족 친밀성이 긍정적인 결혼관과 관련된다고 하였고, 김명자(1990)는 결혼, 성 역할, 효도 등 대부분의 가족가치관이 결혼만족과 관련되었다고 하였다. 또 강은령(1989)이나 최규련(1984)은 부부간의 대화나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가족원의 성 역할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고 했지만, 이미숙(1997)은 가족주의가치와 결혼만족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을 선정하고서, 이들이 여성노인들의 가족가치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에는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및 가족가치관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는 연령, 혼인유형 및 기간, 학력, 종교, 자녀수, 가족형태, 소득, 출생순위, 본인 및 배우자 직업 건강상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그리고 자아존중감, 가정생활만족도, 배우자 및 자녀와의 만족도 등이었다. 자아존중감은 2문항, 가정생활만족도는 1문항,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와의 만족도는 2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또 가족가치관을 측정하는 척도는 결혼에 관한 6문항, 성 역할에 관한 2문항, 자녀에 관한 3문항, 부양에 관한 2문항, 가족주의에 관한 2문항 등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1> 참조). 각 문항의 반응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였으며, 척도는 관련전공자들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검증한 후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002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정이나 여가시설의 방문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질문지 조사는 모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질문지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들을 제외한 231명의 자료만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연령은 60-64세가 56.3%, 65-69세가 24.2%, 그리고 70세 이상이 19.5%이었다. 혼인유형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1.9%이었으며, 그들의 대다수가 초혼 당시의 배우자였다. 혼인을 한 후 경과된 기간은 41년-50년의 비율(45.4%)이 가장 높았다. 학력은 매우 낮은 편으로 초등학교 졸업자가 58.9%이며, 무학까지 포함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74% 정도였다. 종교는 불교도가 3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기독교였다.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표 1> 가족가치관 척도의 구성

구 분	문 항	참고문헌
결혼관 ($\alpha=.67$)	결혼은 해야만 한다	강은숙(1981), 송재희(1988), 홍준숙(1987), Newcomber & Udry(1984), Surra(1990)
	사랑한다면 여성도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결혼 전 동거는 가능하다	
	성만족 정도는 결혼생활에 중요하다	
	기혼여성의 외도는 가능한 일이다	
	남편 사망 후 여성은 재혼 안하고 사는 것이 좋다	
성역할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	김동일(1991), 정종희(1983), Lueptow(1980), Smith & Self(1980)
	여성은 직장보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다	
자녀관 ($\alpha=.85$)	결혼 후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한다	강숙경(1992), 고정자(1983), 양명숙(1996), Leavy & Hough(1983)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	
	재산상속 시 장남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한다	
부양관	노후에는 딸보다 아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다	김송애(1991), 서병숙(1988), 허훈(1988)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부양 책임을 져야한다	
가족주의가치관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이 바람직하다	김규원(1995), 김일명(1989), 옥선화(1989)
	가족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녀수는 3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4명, 5명의 순으로, 평균 자녀수는 3.98명이다.

가족형태는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가 45.5%로 가장 많고, 노인 단독가구도 30.3%, 그리고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12.5%이었다. 본인소득은 없는 경우가 많으나 51-100만원인 경우도 16.9%이었으

김 경 신

며, 가족소득은 101-200만원인 경우가 37.2%로 가장 많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35.5%에 이르렀다. 출생순위는 중간이 많고, 본인직업은 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서비스직 종사자도 10.4%이었다. 남편의 직업이 있다는 응답자($n = 131$)들 중에서 자영업자 32.8%, 노무직 25.2%, 사무/전문직 21.4%, 서비스직 20.6%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는 보통으로 인지한 경우가 절반이었으나,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도 30% 정도이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26 ($SD = .73$)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이었다.

결 과

자료분석에 응용된 주요한 통계치 및 통계기법은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변량분석(ANOVA) 및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test 등이었다.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들이 보인 가족가치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먼저 결혼관의 경우 평균 3.82로 중간치(보통이다; 3점)를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전통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혼전성관계, 혼전동거, 외도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재혼에 대한 반응은 찬반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 역할에 대한 반응은 평균 3.29로 중간치보다 약간 전통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가정생활을 중요시한다는 항목에 전통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항목에서는 긍정과 부정 모두 33.5%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전통적인 성향이 높게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31)

변 인	구 분	n(%)	변 인	구 분	n(%)
연령	60 ~ 64세	130(56.3)	가족 형태	부부+ 미혼자녀	27(11.7)
	65 ~ 69세	56(24.2)		직계가족	29(12.5)
	70 ~ 74세	27(11.7)		부부	105(45.5)
	75세 이상	18(7.8)		노인단독	70(30.3)
	평 균	65.36세		없음	155(67.1)
혼인 유형	기혼/동거	143(61.9)	본인 소득	50만원 이하	23(10.0)
	이혼/사별/별거	88(38.1)		51 ~ 100만원	39(16.9)
결혼 형태	초혼	132(92.3)		101만원 이상	14(6.1)
	재혼	11(7.7)	흡연 여부	예	27(11.7)
혼인 기간	30년 이하	13(9.1)	가족 소득	아니오	204(88.3)
	31 ~ 40년	56(39.2)		100만원 이하	82(35.5)
	41 ~ 50년	65(45.4)		101 ~ 200만원	86(37.2)
	51년 이상	9(6.3)		201 ~ 300만원	39(16.9)
	평 균	40.45년		301만원 이상	24(10.4)
학력	무학	34(14.7)	출생 순위	말이	65(28.2)
	초졸	136(58.9)		중간	117(50.6)
	중졸	32(13.8)		막내	49(21.2)
	고졸 이상	29(12.6)	본인 직업	주부	185(80.1)
종교	기독교	63(27.3)		사무직	5(2.2)
	불교	71(30.7)		단순노무직	8(3.5)
	천주교	44(19.0)		자영/판매직	9(3.9)
	기타/종교없음	53(23.0)		서비스직	24(10.4)
자녀 수	1 ~ 2명	35(15.1)	남편 직업 (n=131)	노무직	33(25.2)
	3명	62(26.9)		사무/전문직	28(21.4)
	4명	52(22.5)		자영업	43(32.8)
	5명	51(22.1)		서비스직	27(20.6)
	6명 이상	31(13.4)	건강 상태	건강함	49(21.2)
	평 균	3.98명		보통	115(49.8)
				건강하지 않음	67(29.0)

김 경 신

<표 3>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n* (%)]

구 분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i>M</i> (<i>SD</i>)
결혼	결혼의 필요성	10(4.4)	17(7.6)	30(13.3)	72(32.0)	96(42.7)	3.82 (.63)
	혼전 성관계 가능#	125(55.6)	52(23.1)	28(12.4)	15(6.7)	5(2.2)	
	혼전 동거 가능#	135(60.0)	52(23.1)	26(11.6)	7(3.1)	5(2.2)	
	부부 성만족 중요#	30(13.3)	35(15.6)	84(37.3)	56(24.9)	20(8.9)	
	기혼여성 외도 가능#	139(62.1)	51(22.8)	21(9.4)	7(3.1)	6(2.7)	
	여성 재혼 부정적	26(11.5)	63(27.9)	57(25.2)	58(25.7)	22(9.7)	
성 역할	여성은 남정보다 사회적 능력 열등	15(6.7)	60(26.8)	74(33.0)	69(30.8)	6(2.7)	3.29 (.89)
	여성은 직장보다 가정 우선	9(4.0)	32(14.2)	45(19.9)	89(39.4)	51(22.6)	
	자녀의 필요성	2(0.9)	15(6.6)	26(11.5)	67(29.5)	117(51.5)	
자녀	아들의 필요성	9(4.0)	24(10.7)	29(12.9)	60(26.7)	103(45.8)	3.99 (.99)
	장남 우대 상속	16(7.0)	21(9.3)	46(20.3)	66(29.1)	78(34.4)	
부모 부양	아들이 노후 부양	18(8.0)	19(8.4)	45(20.0)	76(33.8)	67(29.8)	3.66 (1.13)
	장남이 더 많은 부양책임	13(5.7)	27(11.9)	55(24.2)	67(29.5)	65(28.6)	
가족	확대가족 선호	17(7.6)	30(13.4)	76(33.9)	66(29.5)	35(15.6)	3.83
주의	가족의 중요성	1(0.4)	5(2.2)	20(8.8)	93(41.2)	107(47.3)	(.74)

역 점수 (reversed scoring) 문항

나타났는데 ($M = 3.99$), 특히 자녀의 필요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아직도 아들 선호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이었으며, 다만 장남 우대 상속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지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역시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볼 때 아직 노후에 아들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장남의 우선 부양책임에 대한 의식도 과반수가 찬성하여 평균은 3.66을 나타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아직 핵가족 선호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가족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지지를 보여 전체 평균 점수가 3.83에 이르고 있다.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아직도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단지 성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에 비하여 더 근대화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부모부양이나 효도에 대한 가치관도 비교적 전통성이 약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들 선호나 장남우대 등의 의식은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의 관련변인별 차이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의 관련변인별 차이는 <표 4> 및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연령, 학력, 종교, 남편직업, 가족형태, 가족소득 등에 있어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차이는 부양에 대한 가치관에서 유의있게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70세 이상과 미만의 차이였다. 즉 70세 이상 여성 노인의 부양 가치관이 더 전통적이었는데, 아들 특히 장남에 대한 부양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의한 가치관 차이도 부모부양에서만 나타났는데, 고졸 이상 집단의 가치관이 가장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 성 역할, 자녀,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 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경향을 보인 집단은 불교신자들이었다. 성 역할 가치관은 기독교신자가, 자녀 및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천주교 신자가 비교적 근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편의 직업에 따른 차이는 결혼이나 자녀,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자영업자나 서비스직 종사자 남편을 둔 여성들이 비교적 근대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또 노무직 남편을 둔 여성이 자녀나 부모부양의 가치관에 대한 반응이 더 전통적이었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는 부모부양에서만 나타나는데, 직계가족으로 사는 여성노인의 전통성이 가장 강한 편이었다. 가족소득에 따른 차이는 결혼이나 자녀, 부모부양에서 나타나는데, 소득이 201~300만원인 집단에서 가장 전통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자녀관은 가족소득이 중간인 집단에서 매우 전통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에서의 사회인구학적

김 경 신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가치관 차이

변인	구 분	n	결혼		성 역할		자녀		부모부양		가족주의	
			M	D	M	D	M	D	M	D	M	D
연령	60~64세	130	3.80		3.30		3.92		3.57	B	3.90	
	65~69세	56	3.75		3.25		3.91		3.50	B	3.71	
	70~74세	27	3.89		3.29		4.36		4.11	A	3.69	
	75세 이상	18	4.01		3.33		4.19		4.14	A	3.88	
	F		< 1		< 1		1.83		3.24*		1.27	
학력	무학	34	3.83		3.21		4.01		3.62	AB	3.86	
	초졸	136	3.79		3.34		4.07		3.81	A	3.84	
	중졸	32	3.88		3.33		3.77		3.35	AB	3.82	
	고졸 이상	29	3.81		3.03		3.78		3.24	B	3.71	
	F		< 1		< 1		1.18		2.86*		.25	
종교	기독교	63	3.84		3.01	C	3.76	BC	3.45	BC	3.78	
	불교	71	3.89		3.54	A	4.45	A	4.07	A	3.98	
	천주교	44	3.84		3.16	BC	3.61	C	3.16	C	3.72	
	기타/무종교	53	3.71		3.42	AB	3.99	B	3.78	AB	3.77	
	F		< 1		4.73**		9.05***		7.36***		1.51	
남편 직업	노무직	33	3.95	A	3.58		4.42	A	4.33	A	4.03	
	사무/전문직	28	4.14	A	3.26		4.21	AB	3.75	B	3.98	
	자영업	43	3.63	B	3.21		3.76	B	3.34	B	3.77	
	서비스직	27	3.50	B	3.27		3.87	B	3.65	B	3.91	
	F		7.45***		1.25		3.92**		5.72***		< 1	
가족 형태	부부+미혼자녀	27	3.80		3.00		3.65	B	3.16	B	3.92	
	직계가족	29	3.98		3.30		4.37	A	4.18	A	4.01	
	부부	105	3.80		3.37		3.98	AB	3.65	B	3.86	
	노인단독	70	3.77		3.29		3.97	AB	3.65	B	3.73	
	F		< 1		1.13		2.39+		3.65*		1.15	
가족 소득	100만원 이하	82	3.81	B	3.31		3.97	AB	3.69	A	3.78	
	101~200만원	86	3.80	B	3.31		4.12	A	3.89	A	3.87	
	201~300만원	39	4.14	A	3.40		4.40	A	3.92	A	4.14	
	301만원 이상	24	3.62	B	3.12		3.60	B	3.19	B	3.98	
	F		3.80*		< 1		3.51*		2.66*		2.01	

주. F는 일원변량분석, D는 Duncan 검증 결과를 제시한 것이며,

상기의 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는 변인에 대해서만 정리된 것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인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부모부양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들간의 차이가 가장 커 가족가치관 중에서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장 다양한 논쟁거리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족주의 가치관의 경우 어느 집단이나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가족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으로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 및 가족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먼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성 역할, 자녀, 부모부양, 및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집단에서 가장 근대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개인의 건강인지 정도와 가족가치관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노인일수록 정신적으로도 젊은 세대와 유사한 근대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부모부양의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 노인은 다른 집단보다 아들·장남에 대한 부양기대가 더 낮은 편이었다.

이제 가족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에 만족하는 집단이 더 근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 역할의 가치관은 가정생활 만족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더 전통적인 성 역할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노인은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하지만, 근대적인 성 역할 가치관을 지닌 노인은 배우자와의 역할 갈등 등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지지도는 자녀 및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가족지지가 높은 여성노인의 가치관이 더 전통적이었다. 이는 가족지지가 강한 가정의 여성이 가족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등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어, 자녀 혹은 아들의 필요성 등을 더 강조하게 되며 가족주의 가치도 더욱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

<표 5>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차이

변인	구분	n	결혼		성 역할		자녀		부모부양		가족주의	
			M	D	M	D	M	D	M	D	M	D
개인 변인	건강 상태	건강함	49	3.65	2.99	B	3.67	B	3.27	B	3.56	B
		보통	115	3.84	3.47	A	4.07	A	3.77	A	3.82	A
		건강하지않음	67	3.88	3.20	AB	4.07	A	3.77	A	4.04	A
		F		2.15	5.34**		3.12*		3.71*		5.88**	
	자존 감	낮은집단	47	3.73	3.20		3.95		3.71	A	3.61	
		중간집단	123	3.89	3.40		4.09		3.80	A	3.88	
		높은집단	61	3.78	3.11		3.81		3.31	B	3.84	
		F		1.14	2.33		1.65		3.90*		2.33	
	부부 관계	불만족집단	16	3.82	3.23		4.40		4.17		4.07	
		중간집단	68	3.78	3.20		3.86		3.57		3.84	
		만족집단	59	3.89	3.44		3.98		3.61		3.89	
		F		< 1	1.21		1.82		1.69		< 1	
가족 변인	자녀 관계	불만족집단	36	3.82	3.37		4.27		4.05		3.72	
		중간집단	164	3.90	3.30		3.98		3.58		3.90	
		만족집단	31	3.77	3.26		4.04		3.89		3.88	
		F		< 1	< 1		1.19		2.67		< 1	
	가정 생활 만족 도	낮은집단	29	3.83	3.12	B	3.81		3.54		3.72	
		중간집단	179	3.82	3.28	B	3.99		3.66		3.85	
		높은집단	23	4.06	3.73	A	4.33		4.00		4.00	
		F		1.47	3.21*		1.73		1.10		< 1	
	가족 지지	낮은집단	30	3.78	3.21	B	3.47	C	3.38		3.59	B
		중간집단	166	3.78	3.24	B	3.99	B	3.65		3.82	AB
		높은집단	35	4.01	3.64	A	4.43	A	3.99		4.07	A
		F		2.03	2.88+		7.79***		2.33		3.52*	

주. 낮은 집단은 평균으로부터 1SD 이하에 해당된 경우이며, 높은 집단은 평균으로부터 1SD 이상에 해당된 경우이며, 또 중간집단은 그 사이에 해당된 경우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고, 또 그 가치관이 관련된 변인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여성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의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결혼관에 있어서는 대체로 전통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 역할에 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중간보다 약간 전통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전통적인 성향이 매우 높으며 특히 자녀의 필요성이나 아들 선호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이고, 장남 우대 상속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부모부양 가치관에서는 노후에 아들에 의지하는 경향이 아직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주의 가치관은 핵가족 선호도가 유지되고 있고 가족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아직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성 역할 가치관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근대화 경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양 및 효도 가치관도 비교적 전통성이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아들 선호, 장남우대 등의 의식은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의 관련변인별 차이를 보면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는 연령이 낮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이 부모부양 가치관에서 더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불교신자인 경우 가장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편직업별 차이에서는 자영업, 서비스직이 비교적 근대적이며 자녀나 부모부양의 가치관에서는 노무직의 전통성이 두드러진다.

가족형태별로는 직계가족으로 사는 여성노인의 부모부양 가치관에서 전통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중간인 경우 가장 전통성이 두드러지며 부모부양 가치관은 소득이 높은 집단의 가치관이 가장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부양 가치관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가족가치관 중에서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장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주의 가치관의 경우에는 어느 집단이나 공통적으로 굳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및 가족변인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집단에서 가장 근대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노인이 정신적으로도 젊은 세대와 같은 근대적 가치관의 수

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가치관이 보다 근대적이어서 아들이나 장남에 대한 부양기대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성 역할 가치관이 보다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가 높은 여성노인의 자녀관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전통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사항을 논의·제언하자면, 먼저 여성노인의 경우 가족가치관 중에서도 성 역할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되는 것을 볼 때 여성의 변화가 범세대적으로 폭넓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과의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 역할 가치관을 노인부부의 갈등의 요인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성 역할 가치관이 보다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남 점도 유사한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근대적인 성 역할 가치관은 노인세대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성 역할 가치관이 근대적인 노인이 가정생활에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가정의 역할관계 등에서 이러한 가치관 변화가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가족지지가 강한 여성이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인 성 역할 가치관 등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인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집단의 부모부양가치관이 가장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부양 가치관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가족주의 가치관의 경우에는 어느 집단이나 전통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 여성노인의 가족에 대한 지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하겠지만, 부양문제 등 현실적인 대안에 있어서는 실제적 생활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여성의 복지 수준에 따라서 일부 가치관은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한 여성 노인이 근대적 가치관의 수용도가 높아, 노인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가치관이 상호 연관되고 있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의 건강 측면의 조화를 잘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경우 부모부양 가치관의 근대성과 연결되고 있어 노인의 독립적인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특히 독거노인 등의 경우 자존감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통하여 생활에 대한 적응이 수월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숙경 (1992).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령 (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숙 (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정자 (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 (2), 89-106.
- 공미혜 (1993). 은폐된 성, 과장된 성: 대학생들의 성 의식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 (부산대), 4, 27-47.
- 공보처 (199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서울: 공보처.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 (10), 145-160.
- 김규원 (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한국가족학회), 7, 213-255.
- 김동일 (1991). *성의 사회학*. 서울: 문음사.
- 김명자 (1980).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 변용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8, 453-470.
- 김명자 (1990).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4, 139-166.
- 김송애 (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 류점숙 (198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논문집*, 29, 73-101.
- 김인자 · 황응연 (1974).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 김일명 (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1980).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관계. *부산여대 논문집*, 8, 287-298.
- 김태길 (1969). 세대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 *아세아학보*, 6, 80-81.
- 김태길 (1996). *한국윤리의 재정립*.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혜선 · 김영희 (1983). 배우자선택과 성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 (2), 107-125.
- 박경란 · 임춘희 (1989). 노년기의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생활만족도. *인제논총*, 5, 129-158.
- 박순희 · 함귀옥 (1986). 남녀 대학생들의 테이트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상명여대 가정교육학회 논문집*, 20-28.
- 박인덕 (1973).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숙명여대), 12, 151-174.
- 박재간 · 임춘식 (1983). *노인학교 노인교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박진숙 (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 (3), 129-147.
- 박태은 (1983). *도시주부의 성 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 최혜경 (2001).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의 노후 부양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63-75.
- 박혜인 (1988). 한국농촌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 분석. *여성문제연구* (효성여대), 16, 79-102.
- 박혜인 (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서울: 교문사.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 서병숙 (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병숙·김 윤 (1983).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 (2), 127-138.
- 손정구 (1998). 노인의 부양기대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의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재희 (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숙 (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 역할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 (2), 167-181.
- 옥선화 (1980).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 *성심여대논문집*, 11, 88-90.
- 옥선화 (1984).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II*. 서울: 교문사.
- 옥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 127-150.
- 이동수 (1987).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2, 229-256.
- 이미숙 (1997).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요인 연구: 가족주의가치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생활과학연구논집*, 13, 87-105.
- 이연주 (1984). 한국가족의 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 (2), 101-112.
- 이영하 (1975). 노인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방안. *공주사대논문집*, 13, 199-220.
- 이정숙 (1985). 여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한양대학교), 3, 367-383.
- 이정연 (1982). 남편의 성 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오연옥 (1995). 근로청소년(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 (4), 25-38.

김 경 신

- 이천세 (1973). *농촌지역주민의 가치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조 (1996). *도시노인의 부양실태와 부양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희 (1989).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춘희 (1987). *분거한 도시 장남부부의 부부의식 유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향 (1988). *대학생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 · 이선자 (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 23-29.
- 정원식 (1969). *정의의 교육*. 서울: 배영사.
- 조영숙(1980). 전문대학 여대생의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순천농전 논문집*, 17, 311-332.
- 정중희 (1983).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1978). *시간적 차원에서 본 가족의 가치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 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 22 (2), 91-112.
- 한국인구보건원 (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서울: 한국인구보건원.
- 한은주 · 김태현 (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 95-116.
- 허 훈 (1988). 한국대학생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8, 89-106.
- 홍승직 (1971). *한국사회학연구총서: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홍준숙 (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lman, M., & Ganong, L. H. (1984). Effect of family structure on

- family attitudes and expectations. *Family Relations*, 33, 425-432.
- Leavy, R. L., & Hough, O. B. (1983). The value and cost of children cross-generational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par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57-62.
- Lueptow, L. B. (1980). Social structure, social change and parental influence in adolescent sex-role socialization: 1964-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93.
- Newcomer, S. F., & Udry, J. R. (1984). Mothers influence on the sexual behavior of their teen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77-485.
- Smith, M. D., & Self, G. D. (1980). The congruence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105-109.
- Surra, C. A. (1990).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44-865.

김 경 신

**The Elderly Women's Family Value Orientations
and Related Variables**

Kyeong-Shin Kim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500-757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find out general trends of value orientations of family among elderly women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related variables.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231 women over 60 years old residing in Kwangju. The traditional trends of old women's value orientations were outstanding except sex-role orientations. The value orientation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especially in area of orientations of children's support for parent, but value orientations of familism was relatively preserved among elderly women. Also value orientations of famil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hysical health, self-esteems, satisfaction level of family life and family support. Healthy and self-respected women presented more modernized orientations and the high level of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support were related traditional value orientations.

(논문접수일: 2002년 10월 2일)

(수정논문접수일: 2002년 11월 4일)

(논문게재승인일: 2002년 11월 25일)